



# 토종·용병 스파이크쇼 V리그 요즘 볼만 하네

문성민·가빈 등 고력에 뜨거워진 순위싸움…흥행 기폭제로

내 프로배구 최초로 한 시즌 1000득점을 돌파하고 역대 최고 공격 성공률(55.55%)을 자랑했던 가빈은 시즌에도 경기당 평균 27.8득점으로 부문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시즌 초반 부진에 빠져 6위까지 밀린 게 아쉽지만 타점 높은 공격력을 뽐내는 가빈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현대캐피탈이 우승 청부사로 데려온 푸에르토리코 국가대표 헤터 소토와 대한항공의 복덩이 용병 예반 페이티드도 각각 경기당 평균 20.4득점과 19.6득점으로 부문 2,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밀로스 솔라페치(KEPCO45)와 밀란 페피치(LIG손해보험)도 공격 주축으로 제몫을 해내고 있다.

득점 부문 경쟁은 용병 일색이다. 아마추어 초청팀 상무와 용병을 퇴출한 우리캐피탈은 제외한 나머지 팀들의 맞대결에서 특급 외국인 해결사들의 맞대결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통적인 라이벌인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과 경기에서 가빈과 소토의 최고 용병 자존심 경쟁이 뜨겁다. 지난 2일 맞대결에선 가빈이 혼자 42점을 사냥하고 57.97%

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3-1 승리를 이끌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또 대한항공의 선수 징수를 이끄는 애반과 LIG손해보험 상승세 혁신 페피치의 네트를 사이에 둔 대결은 승패 뜻지 않은 관심거리다. 스타성을 갖춘 토종 거포들의 맞대결도 흥미롭다.

독일과 터키 리그에서 뛰었던 대표팀의 주교 문성민(현대캐피탈)이 국내로 돌아왔고 '원순 거포' 박철우가 지난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 현대캐피탈에서 삼성화재로 이적하면서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형성했다.

또 연예인 뺨치는 외모에 절정의 기량을 뽐내는 김요한(LIG손해보험)과 레프트로 변신해 맹활약하는 '특급 엔진' 김학민(대한항공), 올해 프로에 데뷔한 '대형 신인' 박준범(KEPCO 45), 김정환(우리캐피탈), 상무의 혜결사 강동진도 '아로우 부레'를 물고 니고 있다.

이들의 인기몰이 덕에 올 시즌 프로배구는 1리운드에 5만455명의 관중을 동원,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만732명보다 35%의 폭발적인 관중 증가세를 보였고 2리운드 들어서도 열기将进一步升高。

연합뉴스



〈특급용병 삼성화재 가빈 슈미트〉

특히 박철우(삼성화재)와 문성민(현대캐피탈)이 처음 맞붙었던 지난 2일 대전 충무체육관(관중 수용인원 4천300명)에는 만원을 이뤄 토종 거포 대결에 쏠린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여기에 김요한·문성민, 김요한·박철우, 신인왕을 다루는 박준범·김정환 맞대결도 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자부도 득점 부문 1-3위에 늘어선 미아(한국생명), 케니(현대건설), 몬타뇨(인삼공사)와 도로공사의 선두 돌풍 주역인 사라파비(득점 부문 5위)도 수준급 실력을 뽐내며 팬들의 배구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종거포 현대캐피탈 문성민〉

어느 시즌보다 넘쳐나는 특급 외국인 선수들이 국내 프로배구 무대를 점령한 가운데 소속팀을 대표하는 토종 거포들의 맞대결은 연일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남자부는 삼성화재-현대캐피탈의 양강 구도가 깨지고 수준급 선수들이 스파이크 쇼를 펼치면서 흥행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2010-2011시즌에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외국인선수들이 불꽃 활약을 펼치면서 배구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삼성화재에서 2년째 뛰는 간판 공격수 가빈 슈미트가 화끈한 광활한 주인공이다. 지난 시즌 경기당 32.65점을 뽐으면서 국

## 광주 FC 팬과의 만남 8일 공무원교육원서 인사회

광주 FC가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갖는다. 광주는 8일 오전 광산구 소촌동 광주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 FC 히망드리' 행사를 갖고 지역민들에게 신년 인사를 한다.

이번 행사는 2011년 K리그 출격을 앞둔 광주의 선전을 기원하고 지역 축구계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만희 감독을 비롯한 광주 선수단과 구단원 강운희 시장, 광주 축구협회 기영우 회장, 광주 축구연합회 장신수 회장 그리고 서포터즈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오찬을 갖고 지역 축구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솔한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AG 노골드 레슬링 지도자 첫 공모

### 협회 20여명 면접… 대표팀 감독 등 오늘 발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불굴의 정신력을 갖춰야 합니다" "선수들과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레슬링 국가대표와 삼비군 감독 면접이 치러진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육관 4층 회의실에서는 한겨울 추위를 잊은 지도자들의 '백기생명'이 펼쳐졌다.

이들은 2010 광주여 아시안게임에서 '노골드'에 그친 레슬링 대표팀을 쇄신하고자 대한레슬링협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지도자 공개 모집에 응시한 지도자들이다.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해 면접에 참가한 20명의 응시자는 저마다 한국 레슬링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하며

열변을 토했다.

실업팀이나 학교에서 저마다 방식으로 선수들을 가르치는 이들이 내놓은 해법도 각양각색이었다.

한 지도자는 선수들의 목표 의식이 악해

지면서 정신력이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부진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정신력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지도자는 비슷한 원인을 지적하면서도 선수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표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응시자는 세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훈련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선수들을 가르치면서 사용했던 상대 분석 노트를 공개하고 기본

적인 훈련 방식도 소개했다.

그 외에도 1년 분량의 훈련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해 발표한 지도자도 있었고,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우승자들의 나이를 분석하며 현재 레슬링 대표팀 선수들이 곧 비슷한 나이로 전성기에 올라서는 만큼 체계적으로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부활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한 이도 있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던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는 "알음알음으로 지도자를 뽑았던 예전과 달리 확실히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을 점수로 매겨 7일 오전 대표팀과 삼비군 새 지도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 뽑은 코치진은 오는 15일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단과 새해 훈련을 시작한다.

연합뉴스

## 한국 스포츠 '약물 쇼크'

### 보디빌딩·사격·근대5종에 프로농구서도 복용 발각

한국 스포츠가 금지약물에 신음하고 있다.

보디빌딩에서 또다시 약물 파문이 터진 가운데 사격과 근대5종에 이어 프로농구에서도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가 발견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91회 전국체육대회 보디빌딩 종목에서 금메달리스트인 김형찬(대구)과 플라야급(60kg) 동메달리스트 정국현(부산)도 흥분제인 '메탈헥사아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메달을 따지 못했던 헤비급의 한슬기(부산)는 스테로이드제인 '메탈헥사아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메달을 따지 못했던 헤비급의 한슬기(부산)는 스테로이드제인 '메탈헥사아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프로농구, 첫 금지약물 적발=KBL

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10개 구단의 선수 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검사를 시행한 결과 서울 SK의 A 모 선수의 소변 시료에서 금지약물인 이뇨제 성분이 검출됐고, 해당 선수와 구단은 KBL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 선수는 비시즌에 체중을 빼려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BL 도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해당 선수는 9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면 국내 프로농구 사상 첫으로 금지약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된다.

또 지난해 전국체전 사격 속사권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보디빌딩에서 6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전국체전 메달리스트 가운데 남자일반부 밴텀급(65kg)에서 우승한 김진식(대구)을 비롯해 라이트급(70kg)과 라이트미들급(80kg)에서 나란히 김병수(충북)와 이두희(대구) 등 금메달리스트 3명이 KADA로부터 2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김진식은 스테로이드인 '스타노졸룰'을 맞았던 헤비급의 온상=그동안 '약물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받아왔던 보디빌딩에서 6명의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전국체전 메달리스트 가운데 남자일반부 밴텀급(65kg)에서 우승한 김진식(대구)을 비롯해 라이트급(70kg)

과 라이트미들급(80kg)에서 나란히 김병수(충북)와 이두희(대구) 등 금메달리스트 3명이 KADA로부터 2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 지난해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도 금지약물이 발견된 장애인 쇠스비구의 P모 선수와 장애인 양궁의 L모 선수도 각각 자격정지 3개월과 견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 호남대 박인혜 교수 골프 국가대표 코치 임명

호남대학교 골프산업학과 박인혜(31) 교수가 골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코치에 임명됐다.

대한골프협회 선수강화위원회는 5일 "골프가 2016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한국의 국가대표 및 상비군 팀 전력강화를 위해 박인혜 교수를 코치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오는 25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국가대표 및 삼비군 동계 훈련에 참여해 선수들의 기량향상을 위한 기술훈련과 체력훈련 및 정신력 강화 훈련



을 맡게 된다.

한편 중학교 때 골프에 입문한 박 교수는 주니어대회를 석권하며 한국여자골프의 유망주로 평가받았으며, 이화여대 재학시절인 1998·1999년 태극마크를 달고 KLPGA와 국제무대에서 활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GG경매컨설팅(주)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 전화: 051-222-1907  
• 팩스: 010-9311-1907

### 근린시설/근린상가/주유소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첨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곡동	1120/3954	279억원	15억3226평	
월곡동	115평	5억4천	2억4천	모데니시아(군산)	
월곡동	365/1238	12억7천6백	8억7천6백	유한증(2008)	
양정동	512/651	9억7천3백	6억5천3백	주유소	
양정동	307/0498	26억7천	18억7천7백	주유소	
신정동	148/45	2억7천6백	7천7백	드림프리오(2008)	
복구	신정동	231/712	20억7천6백	16억7천6백	주유소
문화동	337/1305	8억7천6백	6억1천3백	5층건물	
중동동	737/722	11억6천3백	8억7천6백	3층건물	
신정동	330/100	6억7천	4억7천6백	5층건물	
남구	주제동	715/359	36억7천6백	25억7천7백	7층건물
동구	자신동	1060/36	4억7천6백	3억4천2백	1층
서구	세종동	651/716	2억7천6백	1억7천6백	1층
성남군	양성동	1730/456	12억7천6백	8억7천7백	주유소
성남군	양성동	438/617	6억5천	2억9천3백	시민당구장
성남군	금성동	691/220	1억4천6백	8천3백	단층식

### 주택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	김첨가	최저가	비고

<tbl\_r cells="6" ix="1" maxc